

지구마을

제 22 호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대 구 대 학 교

사 범 대 학

< 교 육 목 적 >

사랑·빛·자유의 건학정신 아래 따뜻한 가슴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육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이해와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함으로써, 만인의 복지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양성한다.

< 교 육 목 표 >

참스승 교육

- 사도교육의 실천
- 교육현장의 이해
- 전문교육의 심화

열린교육

- 교육의 실천화
- 교육의 개방화
- 특수교육의 활성화

지리교육전공

교 육 목 표

- 자연·인문지리 현상의 지역성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
- 지리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유능한 지리교사를 양성

목 차

제 1장 . 지구마을 22호를 제작하며

지구마을 22호를 펴내며 - 편집부장 김우일
2016년을 맞이하며 - 2015년 학회장 최상현
2016년은 도담 학생회와! - 2016년 학회장 이문수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2015년도 집행부와 감사 준비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지리교육과의 2015년 한 해

제 2장 . 우리는 새내기다 전 해라~

15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제 3장 . 우리들의 발자국 - 감사기

춘계답사를 다녀와서 - 15학번 윤영욱
문경으로 떠나볼까요? - 15학번 박혜진
답은 듯 답지 않은 일본 답사기 - 12학번 이태영
한여름 날의 꿈 in Tidwbn - 13학번 이지현

제 1장 . 지구마을 22호를 제작하며

지구마을 22호를 떠나며 - 편집부장 김우일
2016년을 맞이하며 - 2015년 학회장 최상현
2016년은 도담 학생회와! - 2016년 학회장 이문수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2015년도 집행부와 답사 준비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지리교육과의 2015년 한 해



지구마을 22호를 펴내며

편집부장 12학번 김우일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구마을 22호 편집에 편집부장을 맡게 된 김우일입니다. 우리 지리교육과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 들어올 신입생에게 우리 과의 소개를 위해 제작하는 지구마을 편집을 맡게 되어서 부담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리저리 부탁드리기도 하면서 선,후배님들께 여러모로 신세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집을 계기로 지구마을의 제작이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편집부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며 편집되어 진다는 노력의 결정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한 해에 우리 과에서 실시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단순히 지면상의 글과 사진으로 망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스마트폰 속 사진 몇 장으로 한 해의 추억을 회상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지구마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이 때는 이랬었지' 과거를 회상하며 마치 일기장을 보듯이 피식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마을을 통해 지리교육과 내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들의 논문과 학생들의 답사를 통해 느낀 지리적인 경험담과 평소 지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책 한권에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22호 지구마을을 펴내면서 관심가지고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교수님, 학회장님, 편집부원을 비롯한 선,후배님들께 감사인사를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전합니다. 지리교육과 모든 학우 분들이 이번 지구마을을 통해 과에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재미있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지리교육과와 함께 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졸업을 축하드리고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환영합니다. 2016년 한 해도 아무 탈 없이 학교생활 잘 해 나가고 보람 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도담'과 함께 !

16년도 학생회장 12학번 이문수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12학번 이문수입니다. 지구마을을 발간을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가 2012년 지리교육과에 입학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2016년 지리교육과 학생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배집행부님들이 주로 일을 하셨지만 밑에서 보고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응용해서 2016년 한 해 동안 무사히 학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지리교육과 학생회의 이름은 순 우리말인 '도담'입니다. 도담도담이라고 함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 말처럼 올해 우리 지리교육과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한 일 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를 제가 잘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지리교육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스스로가 1, 2학년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된 불편했던 점, 개선됐으면 하는 점, 좋았던 점을 되새기고 또한 우리 과 모든 학년의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 과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학부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성을 기울여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고생해주신 전임 학생회장 11학번 최상현 선배 및 예하 집행부와 답준위, 편집부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지리교육과 학부생들에게도 보답의 의미로 2016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올해 집행부에 참여하는 우리 집행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교육과 교수님들을 소개합니다

▶지리교육과 교수진 소개

	<p>최종학력 : (영) UNIV. OF LEEDS 문학박사 (사회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인문지리학, 경제지리, 사회지리, 정치지리 관심분야 : 사회지리학, 경제, 정치지리학, 환경지리학 전공 경력 :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p>
<p>최병두 교수님</p>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지형학 전공) 담당과목 : 자연지리학, 기후학, 자연지리조사법, 토양 및 생물지리, 자연지리교육론 관심분야 : 자연지리 전공(지형학) 습지·하천 생태 경력 : 대한 지리학회 이사, 한국지형학회 이사</p>
<p>손명원 교수님</p>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인문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한국지리, 도시지리, 인구지리, 인문지리교육론, 지역개발론 관심분야 : 도시지리학 전공 경력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역임</p>
<p>임석희 교수님</p>	<p>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지리교육 전공) 담당과목 : 지리학입문, 문화지리, 관광지리, 지리교육론, 지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관심분야 : 지리교육학, 관광 지리학 전공 경력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편집부장, 대한 지리학회 홍보이사</p>
<p>오정준 교수님</p>	<p>최종학력 : (영) UNIV. OF BRISTOL 철학박사 (사회정책학 전공) 담당과목 : 사회지리, 세계지리, 지도학과 GIS, 인문지리조사법 관심분야 : 인문지리 전공/ 사회지리, 도시재생 경력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p>
<p>이영아 교수님</p>	

2015년도 집행부



학생회장

11 최상현

부학회장

11 장우일

체육부

11 이재성

12 이문수

학술부

11 손기민

12 최동호

총무부

13 신예지

14 함다인

홍보부

13 임수정

14 조솔아

2016년 집행부 소개 및 포부

부 학생회장 14 함다인

이번에 부학회장을 맡게 된 14학번 함다인이라고합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실감이 안 나네요. 한 해 동안 집행부로서 지리교육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체육부장 12 이승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체육부장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학회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술을 마시고 싶으시다 학회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체육차장 13 정태진

안녕하십니까! 13학번 체육차장 정태진입니다. 16년 지리교육과 학생회에서 1년간 학업발전과 복지를 위해 무단히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리교육과의 안녕을 위해 희생을 할 것입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에게 누 안 꺼치도록 열심히 할 것이며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믿어주시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부장 12 김계현

안녕하세요, 아직 소집해제를 하지 않아 2월에는 뵈지 못하게 되었지만 3월부터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학교생활 하고 싶습니다. 한 해 무사히 학교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부장 12 김동형

안녕하세요. 올해 홍보부장을 맡은 12학번 김동형입니다. 같이 이번 한 해 동안 재미있는 학교생활 해봐요.

홍보차장 15 김다솜

안녕하세요! 2016학년도 지리교육과 홍보차장을 맡게 된 15학번 김다솜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학생회'라는 좋은 역할이 주어진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해 정말 설레고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지만, 홍보 역할을 맡은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활동하여 지리교육과 학우 여러분께 새로운 학과 소식을 가장 발 빠르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부장 14 윤혜영

이번에 지리교육과의 집행부 일원이 되어 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저 너무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편하고 유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

총무차장 15 장현아

안녕하세요. 저는 2016학년도 도담지리교육과 학생회 총무차장을 맡게 된 15학번 장현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된 지금 총무차장이라는 직책을 가지지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부장을 도와 도담지리교육과의 한 해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2015년도 답사 준비 위원회



위원장

13 최진영

기획부

12 오태림

12 권희준

14 배다연

총무부

13 이지현

11 송영민

홍보부

11 김도환

14 박소영

지리교육과에서의 2015년



신년 산행

1월17일 2015년의 첫 행사로 교수님과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함께 초례봉으로 신년 산행을 다녀오며 한 해의 무사를 기원했습니다.

졸업식

지난 2월 27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리교육과 식구들이 모여 졸업하는 선배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종합 M.T

3월 22일~23일 경남 합천으로 종합M.T를 다녀왔습니다. 재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자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범대학 출범식

4월 7일 사범대학 출범식 행사에 참여하여 새로이 선보이는 사범대학 학생회장들의 포부를 보았습니다.



춘계 정기 학술 답사

지난 4월 28일~30일 남해안 일대로 춘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지에서 열심히 보고 느끼고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 동 제

5월 26~28일 대구대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과도 주목을 열어 선·후배가 모여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동문체육대회

지난 5월 30일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에도 교수님들과 졸업하신 선배님들, 학부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범대학 흑백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하여 서문운동장에서 사범대학 흑백전이 열렸습니다. 열심히 몸으로 직접 뛰어가며 노력한 결과 축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추계 정기 학술 답사

10월 28일~31일 각 학년 별로 1학년 대구혁신도시·문경 2학년 일본 3학년 대만으로 추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졸업생 페스티벌

지난 12월 7일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2장 . 우리는 새내기다 전해라

15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15학번 새내기들을 소개합니다~



강 설 립

정문앞 제국 피씨방의 황제이다. 롤충이며 육식주의자다. 생각보다 배드민턴은 잘친다.

키가 180이고 돼지는 아는데 자꾸 똥똥하다고 놀린다. 우리 과 진짜돼지는 따로있다. 고로 난 돼지가 아니다.



고 성 규




김 기 영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기영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오산! 청순 청순한 열매를 먹어 청초한 외모를 자랑하나 사는 곳이 안강이라 똥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잘 챙겨주는 엄마같은 아이. 먹는 걸 좋아하고 대학 와서 살이 많이 찌서 동기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그래도 평사여신이라고 불린다!




김 다 슝

	<p>현재 경상북도에 적응 중이다. 경상도 친구들에게 사투리를 배우고 있다.</p>
<p>김 다 운</p>	

<p>성격이 쿨 하며, 열정적이다. 동기들은 나보고 빠리하다고 놀린다.</p>	
	<p>김 상 우</p>

	<p>15에서 주량을 담당하고 있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학교에 없을 예정이다.</p>
<p>김 서 현</p>	

<p>모르는 사람이나 불편한자리에서 낯을 많이 가린다. 하지만 친해지면 말이 많아진다. 시험기간에 머리가 거슬려 모자를 많이 쓰는데 머리를 안감은거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샀다.</p>	
	<p>김 선 규</p>



김 재 은

미술에 재능이 있으며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인천에 살아서 집에 항상 가고 싶어 한다. 술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알코올 쓰레기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

포항에서 왔으며 부끄러움이 많다.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김 지 영



김 현 중

15인 듯 15아닌 15같은 나,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얼굴이다. 영대에 살고 있어서 시험기간에는 영대 도서관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다.

대면식 때 부터 노래로 지교를 씹어 먹은 대단한 노래실력을 가졌으나 1학기만 하고 휴학하여 어느샌가 사라졌다.



문 홍 엽



박 사무엘

학기 초에 구미 사투리를 써서 왜 같은 나이인데 존댓말을 쓰냐는 말을 들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재미없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서 뭐만 말하면 노잼무엘이라고 불렀다.

서울에서 왔으며 한때 롤 브론즈를 찍어 동기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주목받는 지교의 축구 유망주이다.



박 태 훈




박 혜 진


많은 구미출신 중 한명, 구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주량이 약하지만 술을 좋아해서 주변 동기들을 힘들게 한다.


야구와 먹는 낙으로 산다. 소심한 성격이라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이지만 야구 얘기가 나오면 수다쟁이가 된다.




신 효 원

	<p>목소리 하나로 전후방 10m에서도 알아 볼 수 있다. 첫인상은 안 좋게 보여도 알고 보면 애교 많고 끼 잘 부리는 천사다.</p>
<p>심 민 경</p>	

<p>강원도 동해에서 왔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당구를 좋아해서 당구장 단골이 되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감자 사먹는다!</p>	
	<p>용 상 민</p>

	<p>야외 활동을 좋아하며 게임과 운동을 즐겨한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보기와 달리 먹는것을 좋아한다.</p>
<p>윤 대 근</p>	

<p>1학년 때 사범대 전체 성적을 1등 할 뻔 했다(?). 지교 15학번 대장일 수도 있다(?).</p>	
	<p>윤 영 목</p>



이 경 서

1학년 때 정말 조용히 학교에서 지냈는데 얼떨결에 2학년 과대를 맡게 되었다. 지금도 매우 당황스럽지만 열심히 맡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안동에 살아서 그런지 하회탈을 닮았다.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화려한 입담을 자랑한다. 머리색이 눈 깜짝하면 바뀌는 마법을 부리며 단발이 매우 잘 어울린다.



이 다 혜



이 승 원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굴복해서도 안 되며 오직 자신의 신념만이 정답이다.”

자칭 15 웃음지기, 룸메이트 복이 없다는 것을 대학교 1학년을 보내면서 깨달았다. 1.5.학.번 이승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승 현



이 승 훈

잠이 매우 많고 몸이 호리호리해서 남자 동기들에게 빼다 귀라 불리며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따라해서 앵무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15중에 키가 가장 크다. 물론 몸집도 가장 크다. 긍정적이고 항상 기분이 좋다. 맛있는걸 먹을때 가장 기분이 좋다. 놀러다니는걸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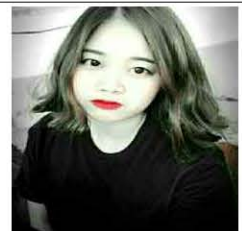
이 왕 혁



이 주 형

정문 앞의 제국 피시방을 자주 간다. 학기 초에 집을 개방했다가 망한 예가 있다. 걸어다니는 지구본이다.

단발병 말기에 선택장애를 앓고 있다. 다행히 옮기는 병은 아니다. 이것만 빼면 참 좋은 친구이다. 늦둥이라 그런지 애교가 많고 작은 키 때문에 귀엽다...



장 영 원



장 현 아

대구 칠곡이 아니고 칠곡군에 살고 있다.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만 현재(사실 1년 내내)는 다이어트중이라고 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날아다니고 기분이 안 좋을때는 혼자 불 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지리교육과에서 키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 출신이다. 하지만 일본인은 아니다! 가장 좋아하는건 밤에 맥주마시기~(방가방가 햄토리ost) 지금은 동기 혜진이와 자취중이다. 즐거운 자취라이프를 듬뿍 느끼고 있다.



전 예 진



제 3장 . 우리들의 발자국 - 답사기

춘계답사를 다녀와서 - 15학번 윤영욱

문경으로 떠나볼까요? - 15학번 박혜진

답은 뜻 답지 않은 일본 답사기 - 12학번 이태영

한여름 날의 꿈 in Taiwan - 13학번 이지현

답사 사진전



춘계답사를 다녀와서

15학번 운영욱

4월28~30일에 동기들과 2,3,4학년 선배들과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남해안 일대로 춘계 정기 학술 답사를 다녀왔다. 첫째 날의 일정은 순천만, 낙안읍성, 대한다원 등 이었다. 첫 번째 답사지였던 순천만은 한국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한 만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인안동, 대대동, 해룡면 선학리와 상내리, 별량면 우산리, 학산리, 무풍리, 마산리, 구룡리 등에 분포한다. 넓게는 고흥반도와 여수반도로 에워싸인 바다 전체를 순천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순천시의 해안 하구 지역에 형성된 지형이 순천만이다.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순천만의 황금갈대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순천만-

낙안읍성은 전라남도 낙안면 남내리에 있는 조선 전기의 읍성이며 고려시대 후기에 왜구가 자주 침입하므로 1397년 절제사 김빈길에 이곳에 흙으로 읍성을 쌓은 것이 시초로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읍성들 가운데 가장 완전히 보존된 것들 중 하나이다. 낙안읍성에서는 낙안읍성의 역사 등을 조별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서 좀 더 쉽고 재밌게 낙안읍성에 대해 알았다. 그리고 첫째 날에 비가 왔는데 오히려 비가 와서 바쁘게 뛰어다니며 열심히 했다. 그리고 대한다원으로 이동했다. 대한다원은 전남 보성에 있는 녹차를 통한 관광농원을 하는 곳으로 1559년에 시작해 반세기를 내다보는 내력있는 차 관광농원이다. 350m 보성

오선봉 주변에 대단위의 녹차 밭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120톤 이상의 녹차를 생산하고 있다. 대한다원에 내리자마자 4월이었음에도 추워서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웠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자 녹차 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또 녹차에 관한 기념품과 녹차를 사용한 아이스크림도 판매했다. 배움이 목적인 답사를 갔던 만큼 저녁에 조원들 끼리 모여 그날 하루 갔던 곳에 대해 얘기도 했다.

둘째 날은 목포에 있는 유달산을 갔다. 유달산은 높이 228m. 유달동, 대반동, 온금동, 북교동에 걸쳐 있고, 유달산 동쪽 기슭을 중심으로 목포시가 자리 잡고 있다. 산은 비록 해발고도가 낮으나 산정은 매우 날카롭고 총총기암과 절벽이 많아 경치가 수려했다. 생각지 못한 산행으로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산에 올라서서 경치를 보니 힘든 것 보다는 뿌듯함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해남 우항리 퇴적층 지대를 갔다. 여기서는 공룡발자국과 공룡 박물관이 있어서 흥미있게 보았다. 그리고 숙소에가서 저녁을 먹고 답사 세미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날 세미나에서 1학년 대표로 소감문도 발표하여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나주평야와 죽녹원을 갔었다. 나주 평야는 영산강 중류의 나주시 일대에 넓게 펼쳐진 총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평야이다. 특히 황룡강과 지석천이 영산강으로 유입하는 합류 지점 일대가 나주평야의 중심이다. 끝없는 평야가 놀라웠다. 또 죽녹원은 담양군이 성인산 일대에 조성하여 2003년 5월 개원한 대나무 정원으로, 약 16만㎡의 울창한 대숲이 펼쳐져 있다.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총 2.2km의 산책로는 운수대통길·죽마고우길·철학자의 길 등 8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된다. 죽녹원 전망대로부터 산책로가 시작되는데, 전망대에서는 담양천을 비롯하여 수령 300년이 넘는 고목들로 조성된 담양 관방제림과 담양의 명물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우리 과에 입학 하고나서 처음으로 가게 된 종합답사였는데, 아직 저학년이라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 마냥 답사에 들뜨기만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유익하고 많이 배우게 되었으며 재미있는 답사여서 좋았고, 다음번에 답사를 가게 되면 그때는 미리 답사지에 대해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에게 잘 알려주고 더욱 더 유익한 답사가 되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답사가 기대된다.

문경으로 떠나볼까요?

15학번 박혜진

저를 포함한 모든 15학번 학생들 모두 입학식 때부터 답사는 저희 지리교육과의 꽃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선배들에게 익히 들어왔었습니다. 춘계답사는 지리교육과의 모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 참여해서 2박 3일 간 이루어졌던 뜻 깊은 답사였습니다. 추계답사는 저희 15학번만 오정준 교수님의 지도하에 다녀왔으며 1박 2일로 춘계답사에 비해 하루 짧았지만 춘계답사 못지않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첫째 날의 일정은 대구혁신도시, 문경대학, 문경 도자기 체험장과 박물관, 문경 새재와 드라마 세트장, 마지막으로 수안보 온천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은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 및 학술 정보의 온라인화를 담당하는 준정부 기관이고, 이곳에서 미래형 교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책상과 달리 사다리꼴 모양의 책상을 사용함으로써 모둠 형식의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었고, 비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체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나누어주고 이것을 전자교과서로서 사용하거나 교사가 활용하는 칠판과 연계되어 있어 모둠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과제를 줄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해보니 앞으로 교육 현장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학생들이 효율적이고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간 곳은 문경대학이었습니다. 문경대학에서는 카르스트 지형 중 하나인 라피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라피에가 피복되어 있었으나 문경대학이 만들어지면서 피복된 라피에가 들어났고, 현재에는 들어가서 관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경을 잘 해 두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카르스트 지형을 보고 만져볼 수도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조성해서 놀라웠습니다. 저희들은 문경 대학의 카르스트 지형을 보고난 후, 문경의 유명한 도자기를 체험과 관찰을 위해 문경 도자기 체험장과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먼저,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체험을 할 때 썼던 도자기 흙은 이천 흙이었고, 문경의 흙은 입자가 거칠어서 처음 하는 사람이 만들기는 힘들어서 이천의 흙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전에 도자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틀을 골라 도자기용 흙으로 모양을 잡는 과정으

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설명을 들을 때에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해보니 쉽게 되지 않아 많은 도움을 받아 완성하였습니다. 도자기를 만든 다음 도자기 박물관을 가서 도자기의 여러 종류와 문경의 도자기 특징에 대해 보았습니다. 문경은 조선 초 분청사기 및 백자 도요지가 많이 분포하였고, 도자기가 우리 민족의 순박한 심성이 그대로 배어 있어 색채와 형태가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과 관찰을 통해 문경의 도자기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문경새재와 드라마 세트장이며, 새재 일대는 낙동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곳이기에 중요한 요충지였다. 새재의 성벽은 산이 험준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성벽을 짓고 나머지는 기존의 산을 이용하여 지어졌습니다. 문경새재의 길을 걸으면서 과거에는 문경새재를 통해 한양으로 가서 과거시험을 쳤다는 사실을 듣고,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교통수단과 도로체계가 많이 발전했고 하나의 시험을 위해 힘든 것을 인내하며 갔다는 것을 통해 앞으로 목표를 위해 인내하며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걸어보니 문경새재 드라마 세트장이 보였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구성되어있었고, 교수님께서 이 세트장에 있는 건물은 실제 건물의 모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해보니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주연 배우들은 못 봤지만, 다른 조연 배우들이 촬영하는 모습과 분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곳은 수안보 온천이었습니다. 수안보 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적 용출 온천이며, 저희가 머문 숙소입니다. 저는 온천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온천을 이용했던 동기들의 말을 빌리자면, 온천을 하고 나온 뒤 더 피부가 좋아진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의 일정은 탄금대, 충주 중앙탑, 목계 나무, 롯데 주류공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은 탄금대입니다. 탄금대는 신라 진흥왕 때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진 산이며, 신립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과 격전을 벌인 격전지입니다. 이때 신립장군이 시에 12번이나 오르내리며 활줄을 물에 적시어 쏘면서 병사들을 독려했었다고 하는 곳이 열두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탄금대를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열두대에 도착하여 보이는 남한강의 모습이 깨끗하고 시원해 보여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다음에 간 곳은 충주 중앙탑입니다. 충주 중앙탑은 국보 제 6호로, 신라석탑 중 유일한 7층 석탑으로 통일신라기에 우리나라의 중앙에 세워져 '중앙탑'이라고도 하며, 현재는 여러 가지

조각과 남한강이 잘 어우러져 주민들의 아늑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앙탑을 보고난 후, 조금 더 걸어보니 남한강이 바로 옆에 있는 길이 있어 산책을 했었는데 그 길 주변으로 여러 가지 동상들이 있어 강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하류에 위치한 목계 나루를 갔습니다. 목계 나루는 남한강 유역에 생긴 수운 물류 구역의 최대 중심지로 조선시대 당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나루터였으며, 원래는 상류에 위치하였으나 계속되는 화재로 인해 하류로 이동했습니다. 현재에는 열차의 개통으로 남한강의 수송기능이 줄고 목계교가 놓이면서 나룻배도 사라져 쇠퇴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그 당시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정도 밖에 알 수 없었고, 그 곳에 있는 신경림 시비를 통해 목계 나루의 존재로 목계 장터가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곳은 롯데 주류공장입니다. 롯데 주류공장은 맥주 제조를 위해 부지를 물색했고, 물 공급이 원활하고 물류 등 지리적 입지가 좋은 충주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롯데의 맥주인 클라우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산이 되고, 실제 공장에서 만든 맥주를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맥주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기계를 볼 수 있었고, 원료를 보고 만질 수 있어 신기한 체험을 하였고, 원료 중에서 어떤 것은 나는 냄새가 의외로 독해서 다들 식겁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맥주를 시음할 때에는 다들 즐거운 분위기로 시음을 하고, 롯데 주류공장에서 준 기념물을 받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이나 대만으로 해외 답사를 가셨던 선배님들이 약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의 답사지에 비해 저와 저희 15학번들이 가는 문경이나 충주가 볼거리나 배울 거리가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음을 이번 답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또 관광을 목적으로 가보아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음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답사가 '물의 순환'이라는 주제에 맞게 잘 짜여져 있었던 것이 좋았고, 동기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학년답사나 정기답사 때도 한 사람의 지리전공자로서 많은 것을 배워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답은 듯 답지 않은, 일본 답사기

12학번 이태영

1. 답사가기 전

이번 학년 답사를 준비하면서 기대되었던 것은 첫째,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국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고 둘째, 간접적으로 느끼던 일본의 모습과 문화를 내 스스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였다. 그동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다를 바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 만의 특유한 느낌이나 정감어린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답사를 통해, 정말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있을지 없을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했다.

2. 답사 1일차



부산국제여객터미널

하카다항

답사 1일차는 부산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날이었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이란 기간 중에 1박은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 위에서 지낼 예정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답사 일정은 오후 5시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집결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로는 총 6개로 그 중에서 우리는 뉴카멜리



〈 뉴카멜리아호 승선 후 부산항대교 〉

호를 타고, 하카다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본격적인 승선은 오후 7시가 넘어서 시작됐고, 오후 8시쯤이 돼서야 배 안에 오를 수 있었다. 배 안에서 석식을 하고 나서 각자 자유시간을 가졌고, 오후 10시 30분이 되자 출항을 했고, 그렇게 우리는 8시간 동안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다. 사실 이때 되게 놀라웠던 게, 예전 부산과 제주를

오가던 배편이 있던 시절에만 해도 부산과 제주까지 11시간이 걸렸었다. 이에 비해, 부산에서 일본 하카타항까지 8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어쩌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일본 가는 게 더 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비록 지금은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배편이 사라졌지만, 부산과 제주를 잇는 배편과, 부산과 하카타를 잇는 배편을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유입이 많은 것처럼, 이러한 이유가 부산으로 들어오는 일본인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

3. 답사 2일차



이튿날,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되었다. 원래 기존의 일정표는 하카타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소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날 코스였던, 다자이후 텐만구를 이날 아침에 가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카타항에 내려서 버스에 탄 후, 다자이후 텐만구로 향했다. 다자이후 텐만구는 우리말로 말하면 태재부 천만궁이다. ‘다자이후’ 지역에 있는 ‘텐만구’로 헤이안시대의 학자이며 시인, 정치가였던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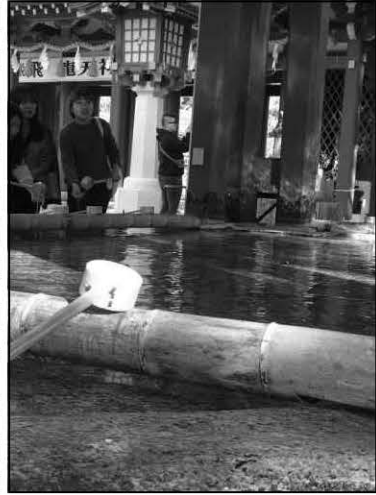


가와라 미치자네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해마다 전국에서 700만 명 정도의 참배객이 학업 성취와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한다.

태재부 천만궁에 들어가기 위해, 주차장에서 내린 후 얼마 올라가니 돌로 된 도리이가 나타났고 도리이를 기준으로 좌우에는 상점가가 들어서 있었다. 어디를 가든 관광지는 다 똑같다는 생각

《 다자이후 텐만구로 들어가는 돌로 된 도리이 》을 했다.

도리이는 전통적으로 나무로 만들고, 대개 주홍색으로 칠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태재부 천만궁의 도리이는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도리이는 현실세계와 신사를 구분 짓는 경계로, 아마도 우리나라의 홍살문처럼, 신을 모시는 곳인 신사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도리이를 따라가 계속 걷다보니 어느 순간 신사가 보였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데미즈야를 만날 수 있었다. 데미즈야는 신 앞에 나아가기 전 몸과 마음의 때를 물로 씻어내기 위한 곳으로, 오른손으로 물푸개를 잡고 왼손부터 씻고 그다음 오른손을, 다음으로 왼손바닥을 오므려 물을 받아 그것으로 입을 가신다. 이때에 물을 마시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화 의식을 신도에서는 '하라이'라고 부른다.



〈 태재부 천만궁 앞 데미즈야 〉

신사는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에서 신령을 모시는 곳이다. 신도는 일본 고유의 자연종교이며 독특한 토착신앙으로, 자연에 대한 숭배심이 종교로 발전한 애니미즘의 일종이다. 초기에는 이처럼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신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태재부 천만궁처럼 점점 학자나 선조를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천황권을 신격화하기 위한 신도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도가 통일된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다.



〈 태재부 천만궁의 본당 〉

곳 중 한 곳으로 생각되고 있다.

태재부 천만궁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크기에 압도당했다. 보통 신사라고 하면 작은 목조건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태재부 천만궁은 지붕부터가 되게 커서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일본의 신사 문화는 웬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그런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것들과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았다.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답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인상 깊었던

태재부 천만궁 다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아소산 일대였다. 아소산은 규슈의 구마모토 현의 동부에 위치한 활화산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칼데라와 웅대한 외륜산을 가지고 있다. 아소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만~9만 년 전에 4번에 걸친 거대한 화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대규모의 화산분화 활동 이후, 화구가 함몰되면서 대규모의 칼데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 중앙 화구구군들에 의해 화산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가 활화산으로 알고 있는 그 아소산은 정확히 말하자면 아소 중앙화구구군 중 하나인 나카다케로서, 우리가 답사를 오기 한달 전 화산폭발이 있어서, 나카다케를 올라 가볼 수는 없었다.

쿠사센리라는 말은 천리까지 뻗어있는 초원이라는 뜻인데, 그 뜻처럼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언뜻 보면 들판으로 착각할 정도로 말이다. 쿠사센리 역시 중앙 화구구군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생긴 일종의 화구터이다. 차 안에서 밖에 볼 수 없었던 고메즈카 역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측화산이었다. 사실 처음 아소산을 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되게 설렘었다. 우리나라에는 활화산이 없기 때문에 활화산을 직접 등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 되게 아쉬웠다. 그리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칼데라가 너무 커서 칼데라 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 교수님의 따로 설명이 없었더라면 그저 넓은 들판에 발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나니 안보였던 외륜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동네 뒷산 정도로 취급했던 한라산이 이제는 동네 뒷산이 아닌 동네 언덕정도로 느껴질 만큼, 아소산 일대의 그 크기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다.



〈 왼쪽에 연기가 나오는 곳이, 나카다케(활화산), 전방에 보이는 들판이 쿠사센리 〉

아소산 다음 일정은 유후인 이었다. 유후인은 오이타 현 중부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유후인 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을로, 분지의 북쪽에는 분고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유후산이 있다. 이곳에는 긴린코 호수가 있는데 석양이 비친 호수 면을 뛰어오르는 봉어의 비늘이 금색으로 보인다 하여 긴린코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긴린코 호수는 호수 서쪽 밑바닥에서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동쪽으로는 차가운 물이 솟아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이류무의 발생으로 인해, 매일 아침마다 안개가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 때가 지나서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상상을 해봤는데 되게 운치 있을 것 같았다.



〈 유후인 마을 〉

유후인은 장소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형이나 특이한 공예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많아 이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유후인은 일본의 젊은 여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길 와서 한바퀴 정도 둘러보니 거리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되게 정감 어린 느낌이 들어서 왜 여길 오고 싶어 하는지 알 것만 같았다.



〈 긴린코 호수에서 교수님과 함께 2학년 단체 사진 〉

유후인에서 한 시간 정도 답사를 한 후 유노하나 재배지로 이동했다. 유노하나란 온천의 꽃을 말한다. 유황의 결정체가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가정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천연 입욕제라고 한다. 벳부에 있는 유노하나 재배지는 300여 년 전 에도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이고 독특한 재배방법과 채취방법은 벳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벳부는 오이타 현에 위치해 있는데, 아소산의 분화로 인해 생긴 용암이 당시 세트 내해와 연결된 바다로 인해 분리되었던 규슈지역을 덮게 되면서 현재의 규슈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오이타 현에 온천이 많이 분포 한다고 한다. 온천의 생성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화산가스가 분출되는 분기공에 지하수가 유입이 되면서 온천이 용출된다는 설이 있다. 우리가 방문한, 가마도 지역은 벳부의 온천관광중 하나로, 벳부하치유 중 한 곳이다. 옛날에 이 증기를 이용하여 물을 데우거나, 밥을 짓는데 이용했기 때문에 가마도(가마솔이라는 뜻)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물의 색깔을 볼 수 있었는데, 온천마다 이러한 물의 색깔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 온도가 낮을수록 황색을 띠고, 높을수록 하늘색 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족욕 체험을 하고 2일차 답사 일정을 종료했다.



〈 유노하나 재배지에서 재배되는 유황 결정 〉



〈 가마도 지역의 황색 온천 〉

4. 답사 3일차



답사 3일차의 첫 답사지는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이었다. 요시노가리는 7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야요이 시대의 환호집락으로 이곳은 야요이 시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후반기인 약 기원전 1세기~3세기 경의 모습을 복원하여 역사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환호집락은 주변에 호를 파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형태의 집단 주거지 인데, 야요이 시대에는 일본에 벼농사가 전래되었던



〈 침입을 막기 위한 목책과 수로 〉
등을 복원해냈고 주거지 북쪽에는 웅관묘가, 그리고 남쪽에는 게코라 불리는 일

시기였다. 따라서 물의 이용과 그 밖의 권인을 둘러싼 싸움에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취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가 싶었다. 벼농사의 생활체계가 큐슈에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역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체계가 시코쿠, 혼슈로 전해지면서 일본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지 않을까 싶다. 현재 이곳은 파수 성

루와, 제사를 지내는 제전, 거주용 건물 등을 복원해냈고 주거지 북쪽에는 웅관묘가, 그리고 남쪽에는 게코라 불리는 일



〈 포세린 파크에 재현된 즈빙거 궁전 〉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을 뒤로한 채, 다음으로 간 곳은 아리타의 포세린파크 및 아리타 도자기 마을이었다. 포세린파크는 아리타야키(아리타도자기)를 주제로한 테마파크로, 아리타 도자기가 유럽에 끼친 영향력과 그리고 아리타야키를 기념하기 위해 독일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다. 포세린파크에는 독일 드레스덴의 즈빙거 궁전을 재현해 낸 건물이 있다. 이 궁전 안에는 일본의 에도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와 세계 명품 도자

기를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포세린 파크를 한바퀴 돌아본 뒤, 우리는 아리타 도자기 마을로 이동했다. 아리타에서 자기 문화가 발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 당시 아리타항으로 잡혀온 도공 이삼평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리타 마을에서는 이삼평을 모시고 있는 신사라던가, 이삼평의 묘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리타마을에 위치한 이즈미산에서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가 발달해 있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삼평이 끌려들어온 아리타

항구를 통해, 아리타야키를 서방 세계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이점을 통해 아리타마을에서 도자기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우리는 아리타마을에서 1시간~2시간 정도 돌아본 뒤, 답사 3일차 일정을 마치게 되었고 그날 저녁 숙소 식당에서 간단하게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다.



〈 자기를 만들기 위한 고령토를 채취하던 곳 〉



〈 이삼평을 제사지내는 도산신사 〉



〈 아리타 마을의 도자기 상점 중 한 곳 〉

5. 답사 4일차



답사의 마지막 일정은 하카타 포트 타워를 들린 뒤 승선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없던 답사지라 의아해 하면서 갔지만, 입장료가 무료라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었다. 하카타 포트 타워는 1964년에 세워졌는데, 그 높이는 약 100m 정도로 낮은 편이다. 하카타항의 등대 역할을 하며, 전망대에 올라가면 여러 배들이

오고가는 하카타 향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주변 경관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시내를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후쿠오카 타워의 모습도 어렴풋이나마 보였다. 1층에서는 하카타향과 관련된 전시관과 주변 지역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카타 포트 타워를 보는 것을 끝으로 답사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승선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이루어졌고, 출항은 12시 30분에 시작해 부산항 도착은 17시 30분 정도로, 부산에서 일본으로 입항하던 8시간보다 더 짧게 걸렸다.



〈 하카타 포트 타워의 전경 〉

6. 답사를 마치면서

이번 일본 답사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역사적 관계들로 인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슷한 점이 있고, 비슷하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가지게 된 것들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의 신도와 신사 문화와, 일본 특유의 목조 건물들은 큐슈라는 지역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활화산과 같은 지역들을 통해, 책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 하는 것이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도자기 예술과, 일본 아리타 지역의 도자기 예술 문화처럼 그 지역의 지형과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생각 등이 다른 문화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